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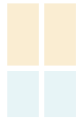
# 국외출장보고서

[재외선거제도·온라인투표방법 연구를 통한  
도입가능성 연구]

2023.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목 차



I. 연수목적	3
II. 연수개요	3
III. 사전연구	5
IV. 세부내용	7
V. 평가 및 시사점	37
※ 덧붙임 자료	40

2023년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 국외연수 결과 보고서

## I 연수목적

- 뉴질랜드 재외선거제도·온라인투표방법 연구를 통한 우리나라 도입·정착 가능성 모색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로드맵 구축
- 연수국가 선거 문화 및 제도 체험을 통한 직원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

## II 연수개요

① 연수주제 : 재외선거에서 온라인투표 도입·정착 방안 모색

② 연수국가 : 뉴질랜드

③ 연수기간 : 2023. 9. 3.(일) ~ 9. 12.(화) [8박 10일]

④ 연수내용

- 뉴질랜드 재외선거제도·온라인투표방법 연구 및 자료 수집
- 선거관리위원회·의회 등 주요 선거·정치 기관 방문 및 관계자 인터뷰

⑤ 연수대상자

연번	구분	소속	직급	성명	비고
1	팀장	부산 사상구	행정주사보	홍채원	총 무, 사전계획
2	팀원	인천 계양구	행정서기	박고은	사전계획 · 자료수집
3		대구 흥보과	행정주사보	송재영	사전계획 · 자료수집
4		경기 과천시	행정주사보	진민우	결과보고
5		경기 화성시갑	행정주사보	조강연	결과보고
6		경기 부천시갑	행정서기	이한솔	결과보고

## ⑥ 연수일정

일 자		지 역	세 부 일 정	비 고
1일차 ~2일차	9.3.(일) ~9.4.(월)	인천 → 오클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발</li> <li>▪ 뉴질랜드(오클랜드) 도착</li> </ul>	
3일차	9.5.(화)	오클랜드 → 웰링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동(오클랜드 → 웰링턴)</li> <li>▪ 뉴질랜드 국회의사당 방문 및 견학</li> <li>▪ 빅토리아대학교 견학 및 현지인 인터뷰</li> </ul>	
4일차	9.6.(수)	웰링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웰링턴 한인회장 면담</li> <li>▪ 뉴질랜드 재외선거 투표방법 및 선거운동 현장 조사 및 자료 수집</li> <li>▪ 주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 참사관 면담</li> </ul>	
5일차	9.7.(목)	웰링턴 → 퀸스타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동(웰링턴 → 퀸스타운)</li> <li>▪ 방문자료 및 면담·인터뷰 내용 등 정리</li> </ul>	
6일차	9.8.(금)	퀸스타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퀸스타운 한인회장 면담</li> <li>▪ 뉴질랜드 선거운동 현장 조사</li> <li>▪ 면담내용 정리 및 결과보고서 작성</li> </ul>	
7일차	9.9.(토)	퀸스타운 → 크라이스트처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동(퀸스타운 → 크라이스트처치)</li> <li>▪ 현지 연구사례 수집 및 인터뷰 자료 준비</li> </ul>	
8일차	9.10.(일)	크라이스트처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캔터베리대학교 견학 및 현지인 인터뷰</li> <li>▪ 뉴질랜드 선거운동 현장 조사</li> <li>▪ 인터뷰 자료 정리</li> </ul>	
9일차	9.11.(월)	크라이스트처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수 결과 정리 및 결과보고서 초안 작성</li> </ul>	
10일차	9.12.(화)	크라이스트처치 →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오클랜드 경유) 귀국</li> </ul>	

### Ⅲ 사전연구

#### ① 연수국가 사전연구

○ 기 간 : 2023. 6월 ~ 8월

○ 내 용

- 뉴질랜드 정치·선거제도 및 최근 정치 동향(10월 의회선거) 조사
- 뉴질랜드 재외선거 진행 과정 및 온라인투표 방법 조사(K-voting 시스템과 비교)
- 뉴질랜드 사회·경제·문화 등 제반자료 수집

○ 방 법

- 팀장 주관 하 개인별 업무 분담을 통한 각 팀원별 자체 연구 활동
- 각종 문헌자료(도서, 논문, 중앙위원회 연구자료) 및 시청각 자료 등 (방송, 유튜브 등 영상, 관계 기관 홈페이지 등) 활용

#### ② 기관 방문 및 관계자 인터뷰 일정 협의

○ 시 기 : 계획수립 후 즉시

○ 대 상

- 방문기관 : 뉴질랜드 선거관리위원회, 뉴질랜드 의회, 빅토리아캔터베리 대학교, 주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 뉴질랜드 한인회
- 인 터 뷰 :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주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 참사관, 뉴질랜드 한인회장, 빅토리아캔터베리 대학생

○ 내 용

- 뉴질랜드 재외선거 온라인투표 방식의 도입 배경 및 효과
- 현행 재외선거 투표방식 만족도 조사 및 온라인투표의 도입에 대한 의견
- 재외선거 투표율 제고 및 투표 편의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 방 법 : 현지 가이드, 뉴질랜드 한인회 접촉 및 중앙위원회를 통한 협조 요청

### ③ 연수팀 간담회

- 시 기 : 2023. 6. 6.(화)
- 참석대상 : 팀원 전원
- 내 용
  - 개인별 사전 조사·연구결과 발표
  - 각 도시별 세부일정·연수 유의사항 토의
  - 팀원 간 자유로운 의견 공유 및 화합 도모

### ④ 연수물품 등 사전준비

- 시 기 : 2023. 8월
- 준비사항
  - 연수국가 기초자료 및 인터뷰 질문지
  - 기관 방문용 기념품(한국의 전통을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
  - 비상약품, 비상연락망, 여행비자 및 개인 물품 등

### ⑤ 국외연수 실시

- 시 기 : 2023. 9. 3.(일) ~ 9. 12.(화) [8박 10일]
- 내용 및 방법
  - 뉴질랜드 관계기관 방문을 통한 정치·재외선거 제도, 온라인투표의 필요성, 문제점 및 해결방안 조사
  - 뉴질랜드 재외선거 투표방법 및 선거운동 현장 조사
  - 뉴질랜드 시민 및 한인회장 인터뷰를 통하여 현행 투표방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 청취

## IV 세부내용

### ① 뉴질랜드 국회의사당 방문

가. 일 시 : 2023. 9. 5.(화)

나. 장 소 : 뉴질랜드 국회의사당

다. 주요내용

- 뉴질랜드 국회는 비하이브(Beehive), 국회도서관, 의사당 3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음. 이 중 비하이브는 영국 건축가 ‘바실 스펜서’에 의해 설계되었으며, 별집을 닮았다고 하여 유명세를 얻었음.
- 뉴질랜드 의회는 초기 하원과 상원으로 구성된 양원제를 취했으나,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상원의 힘은 점차 약해져서 1951년 상원을 폐지하고 지금까지 하원만을 유지하여 단원제 형태를 택하고 있음.
- 의회 의석수는 기본적으로 총 120석(지역구 72명, 비례대표 48명)이나, 지역구 의석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정된 의석수보다 많으면 초과 의석을 인정하기 때문에 총의석수는 선거마다 조금씩 다름.
- 120개 의석 중 마오리 출신 의원에게 7석이 할당됨. 이 의석은 마오리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와 투표율에 따라 결정되며, 마오리족 유권자는 마오리족 선거구 또는 일반 선거구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선거인 등록을 할 수 있음. 마오리족 선거구의 유권자는 마오리족으로 한정되지만, 1967년 이후 마오리족 이외에 다른 민족도 마오리족 선거구의 후보자가 될 수 있음.
- 1883년 세계 최초로 여성의 투표권이 인정되는 등 세계에서 여성의 정치 진출이 매우 활발한 나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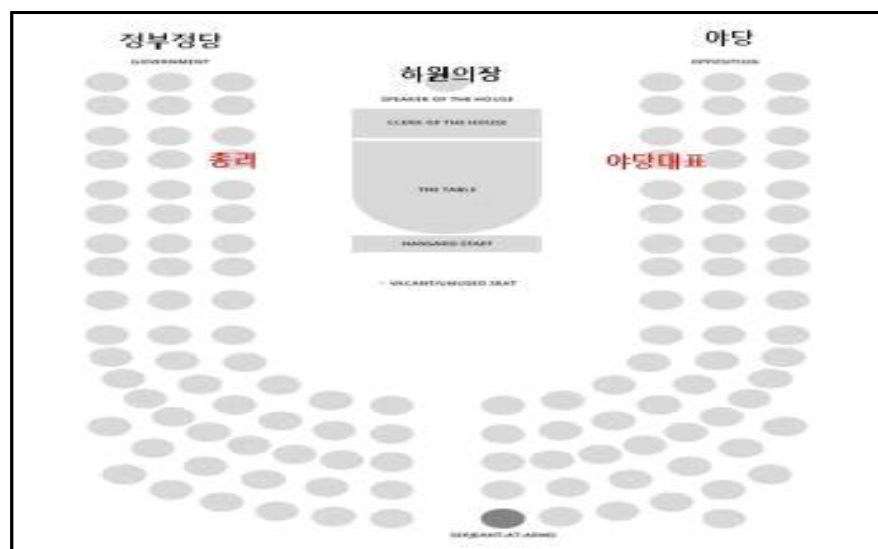
- 총선에 따라 의회가 구성되면 총독은 과반을 차지한 다수당의 당수나, 한 정당이 과반수 득표에 실패하여 다른 정당과 연합한 연립정권의 제1당 당수를 총리로 임명하며, 총리는 의원들과 내각을 구성함.
- 내각은 총 20명의 각료로 구성되며, 총리는 담당업무의 경중에 따라 일부 의원들을 내각에 포함되지 않는 비(非)내각 장관으로 임명함. 장관은 정부부처가 아닌 담당업무를 중심으로 임명되는 만큼 장관수와 정부부처 수가 상이할 수 있으며, 한 장관이 여러 정부부처를 담당하거나 한 정부부처가 여러 장관을 두는 경우가 빈번함.
- 뉴질랜드는 혼합형 비례대표제(MMP)의 선거제도를 채택하여 각 선거인은 지역 국회의원과 정당에 대한 2가지 투표권을 갖음.

※ 혼합형 비례대표제(MMP) : [덧붙임] p.44 참조

- 하원의원 의석은 구역 단위로 각 정당에 할당됨. 정부 정당은 의장의 오른쪽에 앉으며, 야당은 의장의 왼쪽에 앉음.

각 의원들은 자신이 속한 정당에 할당된 구역에 앉으며, 자신의 구역 내에서 앉을 위치를 결정함. 일반적으로 다선의원일수록 앞쪽에 앉고, 초선의원은 뒤쪽에 앉음. 전통적으로 총리와 야당 대표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음.

※ 뉴질랜드 의회 의석 배치도





- 뉴질랜드 의회는 3년마다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해산함. 뉴질랜드 제53대 의회는 2023년 8월 31일 휴회 토론(Adjournment debate)을 마지막으로 휴회에 들어갔으며, 2023년 9월 8일 공식적으로 해산식(the dissolution ceremony)을 통해 마무리되었음. 제54대 의회는 10월 14일 총선 이후 새 정부가 구성되면 소집될 예정.
- 의회는 해산되지만 해산 당시 집권한 정부는 계속해서 의사결정을 통해 국가를 운영함. 정부의 중요한 정책 및 정책홍보는 새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연기되지만 일상적인 국민을 위한 정책은 집권한 정부에 의하여 계속 진행됨.
- 해산 시 완료되지 않은 안건(법안, 청원서)이 있으면 그 안건은 모두 소멸되나, 새 의회가 열리면 국회의원은 해당 안건을 다시 상정할 수 있음.
- 뉴질랜드 국민은 국회의 공백기 동안 청원할 수 있지만 이는 바로 처리되지 않고 다음 의회가 개시되어야 처리할 수 있음.

라. 관련 사진



▲뉴질랜드 의회 외관



▲관계자와 단체사진



▲본회의장



▲前 상원의회실



▲기자회견실



▲관련 영상 시청

② 뉴질랜드 재외선거 투표방법 및 선거운동 현장 조사 등

1. 2023. 10. 14.(토) 뉴질랜드 총선 개요

가. 주요일정

**2023년 뉴질랜드 총선 주요일정**

1월 19일(목)

2023년 총선 날짜 발표

7월 14일(금)	선거운동비용 규제 기간 시작
9월 8일(금)	의회 해산 정당 및 로고 등록 마감일
9월 10일(일)	Writ Day(총독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총선관리 지시서를 부여)
9월 15일(금) 정오	후보자 추천 마감
9월 16일(토)	유권자 이름 및 후보자 명단 공개
9월 27일(수)	재외투표 개시일 전화투표 개시일
10월 2일(월)	사전투표 개시일
10월 13일(금)	사전투표 종료일
10월 13일(금)	선거운동 종료일
10월 14일(토)	선거일 투표(09:00~19:00) 개표(예비선거 결과는 오후 7시부터 공개)
11월 3일(금)	2023년 총선 공식결과 발표
11월 9일(목)	총선관리 지시서 반납 마지막 날

나. 투표방법 등

구 분	내 용
선거인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질랜드 선거인명부는 신청등록제, 영구명부제를 취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을 등록할 수 있음.</li> <li>○ 선거인 등록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18세 이상</li> <li>-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서</li> <li>- 뉴질랜드에서 1년 이상 연속해서 거주한 적 있는 자</li> </ul> </li> <li>○ 해외거주자 선거인 등록 가능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6년간 뉴질랜드에 거주한 적이 있는 뉴질랜드 시민권자이거나</li> <li>- 지난 4년간 뉴질랜드에 거주한 적이 있는 뉴질랜드 영주권자</li> </ul> </li> <li>○ 선거인 등록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뉴질랜드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RealMe로 확인된 신분증으로 온라인 등록</li> <li>- 지정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선거인 등록 양식을 발송 요청하여 등록</li> </ul> </li> </ul>
후보자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당 일괄등록 : 정당은 후보자 등록일 전날(9. 15.) 정오까지 직접 또는 우편, 전자방식으로 후보자를 일괄 등록 후보자의 이름과 본인승낙, 선거권자 증명서류, 정당추천서를 포함한 후보자등록신청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li> <li>○ 개별 등록 : 해당 선거구에 등록된 선거권자 2명 이상의 추천, 후보자의 이름과 본인승낙 및 정당의 등록로고를 첨부한 후보자등록신청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li> <li>○ 무소속후보자 등록 : 해당 선거구에 등록된 선거권자 2명 이상의 추천과 후보자의 이름과 본인승낙을 기재한 후보자등록신청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li> </ul>

구 분	내 용
투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투표 : 별도의 신청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 가능</li> <li>○ 우편투표 : 후보자명부 등록 마감 이후부터 투표</li> <li>○ 온라인·팩스투표 : 재외선거인, 섬지역, 선원, 중대한 자연재해 등으로 투표를 불가능한 선거인에 한해 투표</li> <li>○ 방문투표 : 병원, 요양원 및 수감 중인 자에 한해 투표</li> <li>○ 전화투표 : 선거소집령 발령 후부터 장애인, 선원, 섬지역 등에 해당하는 선거인에 한해 투표</li> <li>○ 선거일 투표 : 10. 14.(토) 09:00~19:00 진행</li> <li>○ 모든 투표용지와 투표함에는 고유 식별자가 있으므로 투표용지가 얼마나 발행되었는지, 투표함이 몇 개인지, 각 투표함에 투표지가 얼마나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음.</li> </ul>
개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선의 모든 투표는 수작업으로 집계</li> <li>○ 선거일 투표는 투표 종료 후 투표소에서, 사전투표 중 일반투표는 선거구 본부에서 예비개표하여 예비선거 결과를 공표[10. 14.(토) 19:00부터 순차적으로 공개]</li> <li>○ 공식 집계를 완료하고 공식 결과를 발표하는 데 보통 20일정도 소요</li> <li>○ 공식개표는 선거일 다음날 오전부터 선거구 본부에서 진행하여 11. 3.(금) 공식결과를 발표</li> <li>○ 개표가 완료되면 선거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에 게시되는 총계 생성</li> <li>○ 선거인 등을 위하여 각 투표소에 총계 및 예비·공식 결과 게시</li> <li>○ 투표 용지는 이의제기 등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선거 후 6개월 동안 보관, 6개월 후 파기</li> </ul>

## 2. 뉴질랜드 재외선거 투표방법 조사

### 가. 재외선거 투표방법

- 온라인투표
- 재외투표소 직접 방문
- 전화투표(Telephone dictation voting) : 시각 장애인 또는 타인의 도움 없이 투표용지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나. 뉴질랜드 총선 온라인투표 방법 : 웹사이트(<https://vote.nz>)에서 투표용지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업로드하는 방식

#### ○ 선거인 등록 요건

- 만18세 이상
- 12개월 이상 뉴질랜드 거주
- 최근 6년 이내에 뉴질랜드에 거주한 뉴질랜드 시민 또는 최근 4년 이내에 뉴질랜드에 거주한 뉴질랜드 영주권자.
- 2023년 총선을 해외에서 투표하려면 10월 13일 금요일 자정까지 등록해야 하며, 이미 등록한 경우 인적사항 등이 최신 상태인지 확인함.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RealMe 신분증을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인적사항 등을 쉽게 등록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있음.

#### ○ 투표용지 다운로드

- 2023년 총선거 재외투표는 9월 27일 수요일부터 가능하며, 투표용지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링크는 9월 27일부터 <https://vote.nz>에서 확인할 수 있음.
- 해외에서 투표할 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투표용지를 다운로드할 수 있음.

- 총 3개의 문서(선언서, 투표절차를 안내하는 투표지침, 투표용지)를 다운로드함.

### ○ 투표용지 작성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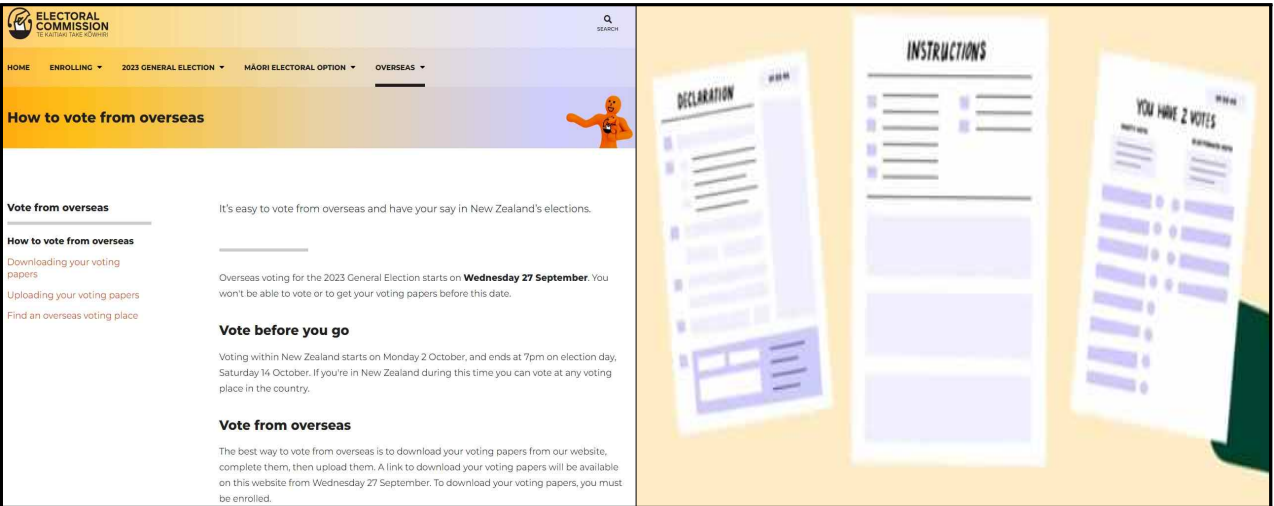
- 투표용지에 Adobe Reader 등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디지털 방식으로 기표할 수 있으며, 투표용지를 직접 인쇄하여 작성한 다음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 업로드 할 수 있음.
- 지침에 따라 양식을 작성하고 기표한 뒤, 투표인과 증인이 선언문에 서명함.
- 서명을 글꼴로 입력하거나 디지털 인증서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선언문에 서명이 누락되는 경우 개표에 집계되지 않음.
- 투표용지 상단의 번호와 선언문 상단의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함.

### ○ 투표용지 업로드

- 2023년 9월 27일 07:00부터 10월 14일 19:00까지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업로드 할 수 있음.
- 투표용지와 선언문 이미지를 업로드 함(본인의 투표용지만 업로드 할 수 있음).
- 스캔하거나 촬영 시 전체 이미지가 담겨야 하며,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해야함. 특히 본인과 증인의 인적사항 및 서명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투표용지 상단의 번호와 선언문 상단의 번호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함.
- 투표용지와 선언문은 2번 이상 제출할 수 없음.
- 투표용지를 업로드하면 참조번호와 함께 성공 또는 실패 메시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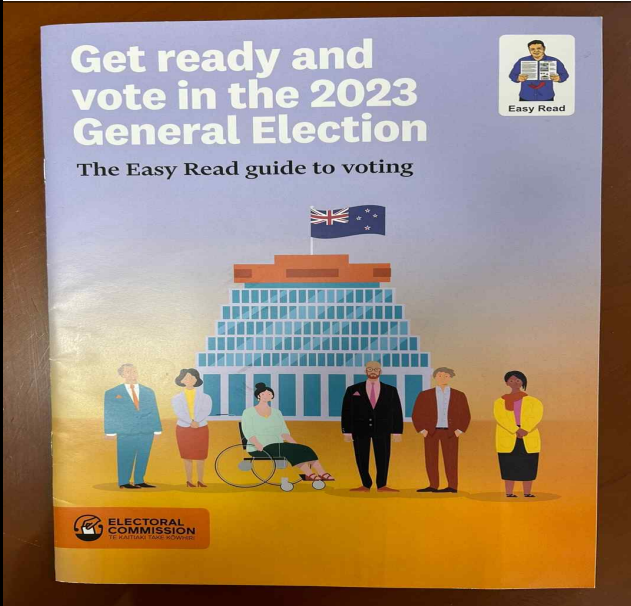
받게 되며 투표용지 업로드가 불가능한 경우 해외투표소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전달할 수 있음.

다. 관련사진



▲재외투표 방법 안내

▲투표용지 등 이미지



▲뉴질랜드선관위 선거 가이드 팸플릿



▲뉴질랜드선관위 선거인등록 관련 팸플릿



### 3. 뉴질랜드 선거운동방법 및 현장 조사

가. 일 시 : 2023. 9. 5.(화) ~ 9. 10.(일)

나. 장 소 : 뉴질랜드 웰링턴, 퀸스타운, 크라이스트처치

다. 조사내용

#### ○ 뉴질랜드 선거운동방법

- 일반적인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가능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한 선거운동은 선거소집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가능함.
- 뉴질랜드 선거법상 선거운동(election advertisement)은 선거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모든 수단으로 정의되어 있음. 신문, 벽보, 게시판, 인쇄물, 옥외광고, TV, 라디오, 인터넷, 기타 전자매체 등을 통한 선거운동이 광범위하게 허용됨.
- 선거일 당일 투표소 안이나 주변에서 선거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선거운동은 금지하고 있음. 다만, 개인의 정치적인 견해를 온라인을 통해 표현하는 것은 제한하지 않음.
  - ※ 시위 또는 행렬, 확성기방송영화 등을 이용한 홍보 또는 정당명, 슬로건, 로고 등의 첩부, 전시, 배포 금지
- 모든 선거광고는 발행인의 이름과 주소가 명시되어야 하며, 제3자가 정당이나 후보자의 유료광고를 지원하거나 광고를 발행할 때에는 반드시 정당이나 후보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비용규정을 준수해야 함.
- 뉴질랜드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규제’ 보다는 ‘허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선거운동 수단 자체의 규제보다는 선거운동 비용을 통하여 규제하려는 방향을 가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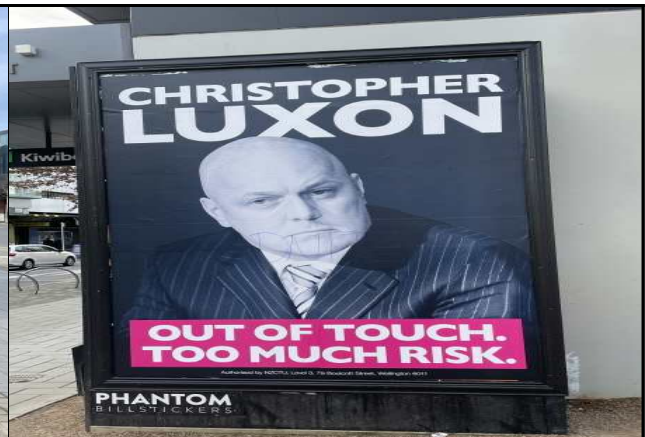
○ 뉴질랜드 총선 선거운동 현장 및 홍보

- 선거일이 임박하지 않아 선거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 다만, 시민 인터뷰 결과 뉴질랜드 내 선거운동은 조용히 이루어지는 편임을 확인함. 또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도심의 미관을 해치지 않은 선에서 옥외광고를 진행하고 있었음.
- 선거 및 투표절차 홍보의 경우 카페에서 선거와 관련한 캠페인 및 선거인 등록, 투표방법 등 총선정보에 대한 홍보를 전개하고 있었음. 선거인들의 접근성이 높은 장소에서 홍보를 전개하고 있어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라. 관련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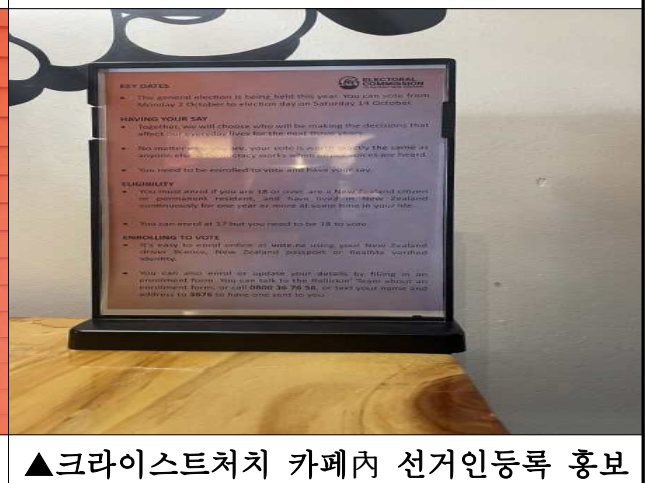
▲선거운동 옥외광고



▲선거운동 옥외광고



▲크라이스트처치 카페內 선거캠페인



▲크라이스트처치 카페內 선거인등록 홍보

### ③ 관계자 면담 등

#### 1. 웰링턴(Wellington) 한인회 회장 인터뷰

가. 일 시 : 2023. 9. 6.(수)

나. 장 소 : 웰링턴 한인회 사무실

다. 면 담 자 : 한인회장 이○○

라. 주요내용

- 현행 재외선거 투표방법에 대한 만족도 및 의견 청취
- 재외선거 투표율 제고방안 및 개선의견
- 재외선거에서 온라인투표 도입에 대한 의견
- 온라인투표 도입 시 우려되는 점

마. 질의응답

○ 재외선거 투표를 한 적이 있습니까?

⇒ 여러번 해봤으며 대선, 총선에 모두 참여했음. 내년 선거에도 참여할 것임.

○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투표율은 어떻습니까?

⇒ 웰링턴에는 대사관이 있기 때문에 인근의 사람들은 투표를 하러 가자는 분위기고, 거의 모두 투표함. 오클랜드 또한 한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이고 총영사관이 있어 그 주변분들도 많이 참여하는 편임.

뉴질랜드는 북섬과 남섬으로 떨어져 있는데, 남섬에는 공관이 없기 때문에 정말 소수의 인원만이 투표함. 그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큰 비용을 지출하여 비행기나 배를 타고 북섬까지 와야함. 남섬의 경우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선착장까지 차로 5시간, 선착장에서 웰링턴까지 배로 3시간 총 8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남섬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선거 시기에 본인이 출장이나 여행 목적으로 북섬에 오게 된다면 투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투표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음. 섬 형태의 국가에서는 이와 비슷한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됨.

○ 뉴질랜드는 재외선거에서 온라인투표를 실시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재외선거에서 온라인투표가 도입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제일 중요한 참여율 자체가 높아질 것임. 온라인투표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함. 부정적인 측면에서 대리선거와 같은 문제도 발생할 우려도 있으나 어떤 제도든지 장점과 단점, 찬성과 반대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부작용을 겪어보면서 확인하고 개선해나가야 우리 미래세대들이 잠을 자다가도 소신껏 투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특히 온라인투표가 유용할 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국가가 락다운이 되었음. 뉴질랜드도 국외에 나가는 것이 매우 제한되었고 영주권이 있는 자만 입국할 수 있었음. 락다운 직후 한달동안은 바깥 출입에도 제한이 있어서 병원에 가야하거나 출입이 불가피한 특수직군 등은 신분증명서를 소지해야했음.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선거를 실시해야한다면 온라인투표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재외선거에 온라인투표가 도입된다면 참여할 것입니까?

⇒ 세계한인회장대회를 하거나 동포간담회를 하면 한인들 사이에서 주요 이슈 중 하나가 참정권·투표권을 주는 것은 좋지만 투표 방법을 개선해야한다는 것임. 현재 뉴질랜드와 대한민국의 투표에 모두 참여하고 있는데, 뉴질랜드에서는 온라인투표와 우편투표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IT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신뢰성이 바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나 생각함.

○ 우리나라는 선거때마다 투표의 신뢰성에 관한 논란이 많은데 온라인투표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 신뢰할 수 있으나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을 위하여 투표방식이 무엇이든지 투표권자가 신뢰할 수 있는, 그 신뢰성을 보여주는 홍보가 필요하고 우선되어야함. 어떤 투표방식이든 낙선한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 뉴질랜드는 선거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높습니까?

⇒ 당연히 높음. 뉴질랜드는 일상에서도 신뢰를 많이 찾아볼 수 있음. 선거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인식의 차이를 보임. 여기도 처음엔 투표를 우편으로 했었으나 요즘은 온라인으로 많이 바뀌었음. 물론 온라인 투표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었으나 정권에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르는 편임. 그리고 성과가 좋지 않으면 투표를 통해 정권을 교체함. 뉴질랜드 사람들은 타인의 말을 듣고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들의 공약을 자세하게 찾아보고 읽어본 후 개인적인 판단으로 투표함.

○ 대한민국 재외선거에 바라는 점이 있습니까?

⇒ 대사관에서 투표 공간을 마련하고, 안내사항을 공지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있음. 특히 투표를 하면 그것을 봉인하여 직원 등 3명이 비행기를 타고 오uckland까지 이송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그것을 또 국제우편으로 발송함. 이런 과정을 각 국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됨. 그 비용으로 온라인투표와 보안시스템을 설비한다면 투표율도 높아지고 비용도 절감될 것임. 또한 공관에서도 모의선거를 포함하여 인력을 확보해야하는 업무 등이 많이 감소할 것임. 절약되는 비용으로 투표한 선거인에게 바우처, 동사무소 이용 수수료 등 혜택을 제공한다면 투표율은 더 높아질 수 있음.

○ 재외선거에서는 주로 선거권자들이 기재한 이메일 주소를 통해 투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홍보 효과가 있습니까?

⇒ 신청한 사람들에게만 이메일로 홍보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음. 대사관 입장을 변론하자면 직원들이 굉장히 바쁘는데 중간에 선거가 있으면 업무가 가중됨. 그래서 홍보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 외교부에서 주어지는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인 업무에 그칠 수밖에 없고 이메일을 받는 사람들도 선거때가 되었으니 대사관에서 매번 하는 업무 정도로 보는 것 같음.

바. 관련사진



▲한인회 사무실에서 단체사진



▲질의응답 사진

2. 주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 방문

가. 일 시 : 2023. 9. 6.(수)

나. 장 소 : 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저

다. 면 담 자 : 윤옥채 참사관

라. 주요내용

○ 뉴질랜드의 재외선거 환경

○ 뉴질랜드 재외선거(전자투표) 국내 도입에 대한 면담

마. 질의응답

○ 뉴질랜드에서 재외선거를 치른 경험이 있습니까?

⇒ 뉴질랜드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외선거 경험은 없음.  
내년 국회의원선거 대비하여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임.

○ 재외선거에 대한 교민들의 관심은 어느 정도입니까?

⇒ 최근 선거인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등록한 선거인 총 2,912명 (국외부재자 2,317명, 재외선거인 595명) 중 2,020명이 투표(69.4%)하여 투표율이 높은 편임.

○ 뉴질랜드 재외선거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 뉴질랜드는 북섬과 남섬으로 구성됨. 대부분의 선거인들은 북섬에 거주하고 투표소 또한 오클랜드, 웰링턴(이하 ‘북섬’)에 위치함. 육로 이동이 가능한 북섬 주민들은 투표소 이동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여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항공이나 선박을 통해 이동해야 하는 남섬 주민들은 거리가 멀어 현실적으로 투표권 행사가 어려움.

○ 뉴질랜드에서 재외선거 시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 위에서 언급한 대로 거주지에 따라 투표권 행사에 실질적인 차별이 발생함. 투표권 보장을 위해 투표소를 증설하거나 교통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뉴질랜드에서 채택하고 있는 온라인투표를 대한민국 재외선거에 도입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뉴질랜드는 재외선거에 한하여 온라인투표를 진행하고 있고 이로 인해 투표율이 과거보다 상승한 것으로 보임. 국내 도입 시 원거리 거주 교민들의 투표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다만, 공직선거 전체에 온라인투표를 적용해 온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온라인투표 운영은 국민적 합의, 정치권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



○ 재외선거 전자투표 도입 시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 보안(신뢰)에 관한 문제와 본인인증 방식에 관한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음. 첫째로 한국은 부정선거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공직선거에 온라인투표를 도입한다면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우려됨. 둘째로 컴퓨터 등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의 선거인들에게 복잡한 본인인증 방식을 요구한다면 투표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를 자녀나 지인에게 부탁을 할 경우 대리투표의 가능성도 있음.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현재의 투표방식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투표율 제고에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온라인투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양한 국가에서 근무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재외선거 업무나 선거가 있습니까?

⇒ 최근 실시한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미국에서 치렀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 선거인이 많아서인지 업무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기억에 남음.

○ 선거업무를 진행하며 불편했던 점이나 선관위에 바라는 점이 있습니까?

⇒ 선거업무 진행 시 필요한 위원, 참관인 등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음. 교민들 대상으로 인력풀을 구성하여 관리한다면 예비 인력 필요시 수급이 빠를 것으로 보임. 또한 선거 전 대면 교육의 기회가 많아진다면 재외선거관리의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임.

바. 관련사진



3. 퀸스타운(Queenstown) 한인회 회장 인터뷰

가. 일 시 : 2023. 9. 8.(금)

나. 장 소 : 퀸스타운 내 카페

다. 면 담 자 : 한인회장 강○○

라. 주요내용

- 현행 재외선거 투표방법에 대한 만족도 및 의견 청취
- 재외선거 투표율 제고방안 및 개선의견
- 재외선거에서 온라인투표 도입에 대한 의견
- 온라인투표 도입 시 우려되는 점

## 마. 질의응답

### ○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되겠습니까?

⇒ 1994년 뉴질랜드에 이민와서 퀸스타운에 거주하고 있음. 현재 뉴질랜드 시민권은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영주권만 보유하고 있음. 퀸스타운 한인 회장을 맡은 지는 약 1년 정도 되었음.

### ○ 이민을 오신 지 약 30년 정도 되었는데 재외선거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 기회가 되면 참여하곤 했는데 최근 제20대 대통령선거는 여건이 되지 않아 재외선거에 참여하지 못함.

### ○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해외 교민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선거는 특히 관심이 높기도 해서 재외선거를 통해 꼭 투표하고 싶었음. 그런데 뉴질랜드의 재외 투표소는 북섬 오클랜드와 웰링턴에만 설치됨.

퀸스타운은 뉴질랜드 남섬에 위치해 투표하려면 북섬까지 이동하여 투표해야 하는데, 북섬에 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남섬에서 북섬까지 가서 투표하기 어려워 대통령선거에 참여하지 못함.

### ○ 투표소와의 거리로 인해 투표하지 못해 아쉬우셨을 것 같은데, 퀸스타운 교민들의 상황과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교민들 사이에서 대통령선거는 특히 관심이 높아서 투표하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존재함. 퀸스타운 교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봤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의견과 대부분 일치했으며, 남섬도 퀸스타운 또는 크라이스트 처치에 투표소가 설치되었으면 하는 여론이 있음.

○ 말씀해주신 투표소와의 거리나 제21대 국회의원선거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재외선거사무의 중지 결정 등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방안을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 뉴질랜드 지방선거는 우편투표를 이용해 투표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을 차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함.

※ 뉴질랜드 지방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지방의회가 주관

○ 뉴질랜드가 재외선거를 온라인투표로 진행하고 있는데, 온라인투표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뉴질랜드 선거에서는 재외선거인으로 투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라인투표는 생소하고, 주위에서도 온라인투표를 해봤다는 얘기는 잘 들어보지 못했음.

※ 뉴질랜드 재외선거 온라인투표는 재외선거인이 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에서 투표 용지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뉴질랜드 재외선거에서 실시하는 온라인투표를 대한민국 재외선거에 도입한다면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 재외선거에서 온라인투표를 도입한다면 투표소까지 가지 않아도 되고, 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좋을 것 같음. 특히 뉴질랜드 남섬과 같이 투표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재외선거인들이 반가워할 만한 제도라고 생각함.

○ 재외선거 온라인투표 도입에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인데, 반대로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까?

⇒ 재외선거인 중 인터넷 이용에 취약한 선거인도 있을 것이고 온라인 투표 시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할 것인데, 경우에 따라 선거인이 온라인 투표에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음.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함.

○ 온라인투표 도입 시 대리투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사실 대리투표 발생의 문제점은 생각해보진 못했고 지금 이 질문을 받아보니 대리투표를 우려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함. 그러나 우편투표를 이용하는 방식도 대리투표의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걱정해서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기보다는 도입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선거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노력이라 생각함.

○ 한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을 알고 있습니까?

⇒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어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몰랐음.

※ 한국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 : 이용을 승인한 학교 등 공공기관에 대하여 PC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투개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 재외선거에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을 도입한다면 선거인 입장에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 다양한 매체를 통해 투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음. 다만, 온라인 투표 도입 시 다양한 매체가 있으면 오히려 선거인 입장에서 혼란이 올 가능성이 있음. 처음 도입 시에는 뉴질랜드와 비슷하게 PC를 이용한 온라인투표를 진행하고 그 이후에 점차 투표 매체를 늘려가면 선거인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만약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재외선거에서 온라인투표를 도입한다면 이용할 생각이 있습니까?

⇒ 당연히 이용할 생각이 있음. 다만, 앞서 말한 대로 선거인 입장에서 투표절차(본인인증 절차 포함)가 복잡하지 않았으면 함. 하지만 투표절차를 너무 간소화하는 등 온라인투표의 보안성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임. 최근 뉴질랜드 교민들사이에서도 투표소를 가지 않고 재외투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재고해주길 기대하는 의견이 있음.

○ 마지막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 한국과 멀리 떨어져 있기에 오히려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가 있으면 더 관심을 갖고 투표하려 함. 하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투표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 아쉬운 마음이 큼. 재외선거만큼은 다양한 투표 방법을 도입하여 재외선거인들의 참정권 보장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 관련사진



▲퀸스타운 한인회장과 인터뷰



▲퀸스타운 한인회장과 단체사진

4 대학교 방문 및 면담

가. 방문일자

- 빅토리아대학교 : 2023. 9. 5.(화)
- 캔터베리대학교 : 2023. 9. 10.(일)

나. 방 법 : 재학생 대상 질의응답

※ 여러 명의 대학생을 인터뷰하여 주요 답변만 기재함.

다. 질의응답

○ 투표해본 적이 있습니까?

⇒ 3년 전에 총선에서 투표했음. 코로나로 인해 선거가 한 달 정도 연기되었고, 특이하게 대마초 합법화와 안락사에 대한 투표를 같이 해서 기억하고 있음. 곧 있을 총선에서도 투표할 것임.

⇒ 참여할 수 있는 선거에 빠짐없이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였음. 최근에 참여한 선거는 2020년도 총선과 국민투표였는데 이번 선거는 코로나 때문에 사전투표가 2주로 연장·운영됐었고 투표소 추가 지정으로 참여에 용이하였음.

⇒ 2020년 총선에서 투표를 해봤음. 2020년이 투표할 수 있는 첫 선거여서 기분이 좋았으며, 이번 2023년 총선에도 투표할 생각임.

### ○ 투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니까?

⇒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유권자로 등록을 하면 선거전에 주소지로 투표 안내문과 카드가 배송됨. 카드는 EasyVoteCard라는 것인데 이것을 지참하면 투표소에 가서 빠르게 투표할 수 있음.

⇒ 먼저 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선거인 등록을 한 후에 선거가 가능함. 등록을 하면 우편으로 선거안내 종이와 카드가 배송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투표소로 방문하면 투표할 수 있음.

⇒ 투표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지는 않음. 다만, 뉴질랜드에서는 투표하기 위해 뉴질랜드 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를 통해 유권자 등록이 필요함. 나이와 시민권이 있는지 같은 간단한 질문에 답하고 운전면허증을 등록하였음. 2020년 총선에서는 사전투표를 했는데 사전투표는 약 2주간 실시했고, 뉴질랜드 전국에 설치된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음.

### ○ 재외선거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잘 생각해보진 않았는데,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해외에 나가서까지 투표를 할 것 같진 않음. 그렇다고 아예 실시하지 않을 수는 없고 어려운 문제로 생각됨.



⇒ 재외선거는 선거인이 해외에서 선거를 하는 제도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음.  
해외에 있어도 선거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정권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함.

⇒ 선거에 대해 관심이 많지는 않지만 뉴질랜드 국민이 해외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라고 알고 있음. 국민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 생각함.

### ○ 재외선거 방법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구체적인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투표를 할 수 있다고는 들었음.

⇒ 대사관에 방문하여 투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방법 등 자세한 절차는 잘 모르겠음.

⇒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2020년 총선에서 친한 친구가 해외에서 투표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음.

### ○ 재외선거는 인터넷에서 투표용지를 다운받아 작성한뒤 업로드하는 방식의 온라인투표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매우 편리해보임. 사실 투표하러 투표소에 방문하는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설레는 것도 있지만 다른 업무가 있으면 번거로울 수 있음.

⇒ 투표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굉장히 편리한 제도라고 생각함. 다만, 재외투표 방법이 전체적으로 온라인투표인지, 아니면 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음. 투표방법을 선택할 수 없이 온라인투표로만 진행된다면 전자기기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은 선거권 행사에 제한이 있을까 우려됨.

⇒ 선거인 입장에서 굉장히 간편한 제도라 생각함. 투표소에 가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투표를 할 수 있다면 투표율 상승에 도움이 될 것임. 또한 온라인투표 진행 시 개표결과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나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음.

※ 뉴질랜드는 투표종료 후 20일 후에 공식결과를 발표함.

○ 온라인투표를 실시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 작성한 투표용지가 제대로 업로드되어 전송되었는지, 정확하게 집계되었는지 궁금할 것임.

⇒ 위에 언급한대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유권자들의 선거권 제한이 문제가 될 듯함. 온라인투표가 편리하기는 하겠지만 해킹, 보안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일단 투표절차가 간단해야 모든 연령층이 온라인으로 투표할 수 있을 것임. 전자기기나 인터넷 이용에 취약한 선거인은 투표가 어려울 것이기에 투표절차가 간단하거나 실제 투표소 설치도 필수적으로 병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대리투표 같은 부작용은 우려되지 않습니까?

⇒ 그 부분은 생각해보지 않음. 본인의 투표권을 절대 다른 사람에게 주진 않을 것이지만, 다른 사람의 신분을 이용해서 그 사람 몰래 투표하는 경우가 가끔 있을 것 같음.

○ 온라인투표는 해킹 등의 문제가 있는데 신뢰할 수 있습니까?

- ⇒ 요즘은 각종 매체가 발달하여 선거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해킹하거나 조작하기는 어려움. 만약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조치될 것임.
- ⇒ 온라인으로 선거를 진행하다보면 해킹 등의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함. 다만, 이를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선거관리 위원회가 존재한다고 생각함.
- ⇒ 투표뿐만 아니라 온라인과 관련된 제도가 도입될수록 해킹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음. 다만, 이를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함.

○ 온라인투표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 ⇒ 투표지가 잘 전송되어 집계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함.
- ⇒ 온라인투표의 절차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 선거인의 투표값이 개표결과로 정확하게 이어진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온라인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앞서 말한대로 해킹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투표와 개표가 결과적으로 동일하게 반영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함.

○ 모든 공직선거에 온라인투표를 도입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투표에 대해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직접 가서 투표하는 현재의 방식이 더 좋아 보임. 그러나 편리함과 참여도를 고려하면 온라인투표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됨.

- ⇒ 전면적 온라인투표 도입은 오히려 일부 선거인들의 투표권을 제한할 수도 있을 것임. 기존처럼 투표소를 운영하면서 온라인투표를 병행한다면 투표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선거인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함.
- ⇒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사전투표가 2주 동안 진행되어 재외선거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없고 마음만 있다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기 어렵지 않음. 그래서 모든 공직선거에 대한 온라인투표 도입은 의문임. 하지만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투표할 수 있다는 확실한 장점이 있는 만큼 도입한다면 이용할 생각은 있음.

라. 관련사진



▲빅토리아대학교 대학생 면담



▲캔터베리대학교 대학생 면담



▲캔터베리대학교 대학생 면담



▲단체사진

## V 평가 및 시사점

### ① 재외선거 온라인투표 도입의 필요성

#### 가. 재외선거인의 참정권 보장의 측면

-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등에 대한 재외선거인의 관심도와 투표 참여 의지는 높으나, 투표소와의 이동거리·비용 및 생업 등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해 투표하지 못하는 선거인이 다수임. 특히 남섬·북섬으로 나뉜 뉴질랜드와 같이 도시 간 이동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국가일수록 공관투표의 어려움이 뚜렷하게 드러남.
-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재해 등으로 현장투표가 축소·중지 되는 경우에도 재외선거인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원거리 투표방식을 도입·시행하여 재외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나. 재외선거 선거관리의 편의성 측면

- 재외선거인 참정권 보장요구에 맞추어 공관 이외의 장소에 추가 투표소를 설치할 경우 장소 설비 및 선거사무인력 등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선거인분포가 낮은 지역(국가)에까지 투표소를 설치·운영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선거관리 측면에서도 많은 비용과 인력이 투입되는 공관투표 외에 새로운 투표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② 기대효과

- 재외선거인인 한인회장들과의 인터뷰로 미루어 봤을 때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투표소와의 거리 등으로 인해 투표하지 못하는 재외선거인이 많을 것임. 온라인투표는 선거인이 공관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하여, 이동이

어렵거나 생업 등의 이유로 투표가 불가능했던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투표소를 설치·철거하고 선거사무 인력을 확보·운영해야하는 공관투표와 달리 온라인투표는 많은 운영인원이 필요하지 않고, 한 번 구축된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 간소화 및 비용 절감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더 효율적일 것임.

### ③ 예상 부작용 등 한계점

온라인투표를 도입할 경우 선거인의 참정권 보장 및 재외투표율 상승에 기여할 것이나 비밀투표 보장, 보안, 유권자의 사용 능력, 정당 간 이해 관계, 재외선거인의 온라인투표 실제 참여 여부 등의 한계가 있음.

### ④ 해결방안

- 세계한인회장대회 등 계기를 통해 온라인투표 도입 시 재외선거인의 실제 참여의사를 조사하여 재외투표율 상승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검증하여 기대효과를 추정해볼 수 있음.
- 온라인투표는 전통적인 현장투표와는 다르게 낯선 투표방식이기 때문에 온라인투표의 장점과 안정성 등을 적극 홍보하여 유권자와의 거리감을 줄이는 것이 필요함. 현재 재외선거인에게 전자우편으로 선거정보를 발송하고 있는데, 선거정보를 안내하면서 온라인투표의 편의성과 안정성, 본인인증투표절차 등 관련 내용을 함께 안내하여 선거인에게 온라인투표가 쉽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온라인투표를 도입을 위해 언급한 문제점에 대해 각계각층의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함.


## 5 종합

- 뉴질랜드 온라인투표와 한국의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을 비교했을 때 본인인증방법 및 투표가능 매체에서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이 보다 선거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음.
- 또한 온라인투표는 현재 학교선거 등 민간선거에서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 투표방식인 만큼, 재외선거 온라인투표 도입에 있어 시스템 구축 등 기술력의 부족함은 없을 것임.
- 다만 비밀투표 보장, 보안, 유권자의 사용 능력, 정당 간 이해관계 등 온라인투표에 대한 다양한 우려가 있음을 확인함.
-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재외선거에 온라인투표 도입 시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얻기 위해서는 도입·실시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및 공론 형성의 장을 마련하여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하며, 도입 후에도 온라인투표가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 및 투표율 상승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함.

[덧붙임]

## 국외연수 사전 연구 내용

### 1. 뉴질랜드 일반 현황

국명	뉴질랜드 (New Zealand)	
국가형태	입헌군주제(국왕 : 영국 찰스 3세)	
정부형태	의원내각제(총독 : 신디 키로 / 총리 : 크리스 힙킨스)	
정치체제	의회민주주의(다당제, 단원제, 임기 3년)	
선거제도	의석수	총 120석
	선출방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구	72개 소선거구(단순다수대표제) 48개 전국단일선거구(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위치	오세아니아 대륙, 남태평양의 섬, 오스트레일리아 남동쪽 ※한국과의 시차 : +3 *매년 9월 마지막 일요일 ~ 익년 4월 첫 번째 일요일 서머타임 : +4	
면적	268,680km <sup>2</sup> (북섬 11.6만km <sup>2</sup> , 남섬 15.1만km <sup>2</sup> , 기타도서 3,542km <sup>2</sup> ) ※한반도의 1.2배, 남한의 2.7배	
인구	470만 명(북섬 76.5%, 남섬 23.5%) ※오클랜드 157만명, 캔터베리 60만명, 웰링턴 51만명	
수도	웰링턴(Wellington)	
GDP	전체 GDP : 2,419억 달러 / 1인당 GDP : 47,210 달러	
기후	해양성기후(1월 평균 : 20℃ , 7월 평균 : 11℃)	
민족	유럽계(74%), 마오리 원주민(15%), 아시아계(12%), 남태평양계(7%) 등	
언어	영어, 마오리어	
종교	개신교(38.6%), 로마가톨릭교(12.6%), 기타(16.6%), 무교(32.2%)	
화폐	뉴질랜드 달러(\$NZ)	



## 2. 지 리

- 전 국토의 50%가 농경지 및 삼림지
- 화산지대가 발달하여 북섬 타우포에는 활화산이 있고 해발 3천미터 이상의 산이 남섬에 18개 위치
  - 활화산과 지진대에 위치하여 지진이 자주 발생
  - 최고봉은 쿡산(Mount Cook)으로서 해발 3,754m
-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크지 않은 해양성 기후로서 연평균 12도 기록
-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뻗은 국토의 방향을 따라 뻗은 산맥에 서풍이 부딪쳐 서쪽 지방에 많은 강수량 기록
- 7~8월이 겨울이자 우기, 1-2월이 여름이자 건기에 해당

## 3. 역 사

### 가. 마오리 이주

- 600~1000년 전 폴리네시아로부터 마오리(Maori) 이주 및 정착
  - 마오리인들은 문자가 없어 구전문학과 웅변이 발달하였으며, 영국인 이주 이후 로마자를 이용, 언어 기록
  - 현재 학교에서 마오리어를 가르치며, 정부기관 명칭은 영어·마오리어 동시 표기

### 나. 영국 식민지 개척

- 1642년 네덜란드인 아벨 타스만이 유럽인으로는 최초로 뉴질랜드를 발견하였으며, 네덜란드 지리학자가 네덜란드 지명 Zealand에 New를 붙여 국제적으로 통용. 1769년부터 영국의 제임스 쿡 선장이 3차례에 걸친 항해 끝에 해안선을 정밀 조사하고 영국과의 교역, 이주 시작
- 1847년 2월 6일 영국 정부는 마오리족 추장들과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대신 주권을 양도받는 조약(Waitangi 조약)을 체결하고 식민지 개척, 1907년 영국자치령 지위 획득, 1931년 영연방 회원국 가입

※ 와이탕이(Waitangi) 조약

- ① 마오리 부족장은 영국여왕에게 주권 이양
- ② 부족장의 땅(토지), 자원 등의 소유권 보장, 단, 모든 거래는 여왕을 당사자로만 성사
- ③ 마오리 부족 모두에게 영국시민과 같은 권리·특혜 부여

○ 1947년 Statute of Westminster Adoption Act 통과로 뉴질랜드 의회가 영국 의회로부터 완전 분리

다. 주요 연표

1642	네덜란드인 아벨 타스만이 뉴질랜드 발견
1840	윌리엄 허슨 초대 총독, 아일랜드만 정착
1840	허슨 총독과 마오리족 대표 간에 와이탕이(Waitangi) 조약 체결
1850	허슨 총독, 뉴질랜드에 대한 영국 주권 선언
1879	보통선거 실시
1893	여성선거권 세계 최초 인정
1907	영국의 자치령
1919	여성 피선거권 부여
1933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 당선
1945	UN가입
1950	한국전쟁 참전
1951	호주·뉴질랜드·미국 안전보장조약(ANZUS 조약) 체결
1962	대한민국 수교
1964	월남 파병
1972	월남 철군
1966	MPP 선거제도 하에 최초 선거 실시
1999	한(김대중)·미(클린턴)·중(강택민) 3국 국민 동시 방문
2001	북한 수교
2014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2023	크리스 힉킨스 41대 총리 취임

#### 4. 경제 및 사회·문화

##### 가. 경제 주요지표(출처: IMF, UNCTAD)

연 도	2018	2019	2020	2021	2022
경제성장률 (실질GDP)	3.5%	3.1%	-1.5%	6.1%	2.4%
국내총생산 (명목GDP, 백만)	209,620	210,830	210,090	249,310	241,940
1인당 국내총생산 (명목GDP)	42,760	42,290	41,310	48,780	47,210
물가상승률	1.6%	1.6%	1.7%	3.9%	7.2%
실업률	4.3%	4.1%	4.6%	3.8%	3.3%

##### 나. 경제동향 및 전망

- 뉴질랜드 경제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정부의 지속적인 경제 확장 정책과 1차 산업 수출 호조, 관광 산업 회복 등에 힘입어 2022년 GDP 성장률 2.4%를 기록하는 등 비교적 빠른 회복세 유지
- 2022년 7.3%에 육박하는 전례 없는 물가상승에 대응하여 강경한 금리 인상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모기지 상승 등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OECD는 뉴질랜드 경제 성장률이 2023년 1.2%, 2024년 1.0%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

다. 산업구조 : 3차 산업이 GDP의 68.8%로 전체 산업구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차 산업은 GDP의 17.8%, 1차 산업은 5.7%를 점유

## 라. 사회·문화

- 뉴질랜드는 1893년에 세계 최초로 여성 참정권을 부여하였으며 복지 국가 및 1일 8시간 노동제도 역시 세계 최초로 확립
-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계 이주민들이 국민의 주류를 구성하고 있어 서구식 문화와 가치관이 지배적
- 20세기 후반부터 원주민(마오리)들의 권익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마오리의 언어·문화를 유지·발전시키고, 와이탕이 조약의 이행과 관련한 불만 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노력 강화
  - 와이탕이 재판소 설치(1975), 마오리 언어법 제정(1987), 마오리 담당 각료직 설치 및 마오리 문화·언어 관련 정부 지원금 지출(1992)
- 1990년대부터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인식하여 아시아에 대해 배우려는 노력을 지속 강화
  - 1994년 설립된 Asia New Zealand Foundation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 2014년 아시아 언어교육 증진을 위해 5년간 1천만 뉴불을 투자하여 초·중등학교 내 아시아어 교육 프로그램 강화 또는 신설을 지원
  - 2017년 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아시아태평양 우수센터를 설립
  - 뉴질랜드 총리 장학금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까지 145 명의 뉴질랜드 유학생이 한국에서 연구 및 인턴십 진행

## 5. 정치·선거제도

### ○ 입헌 군주국가

- 국가 원수는 찰스 3세 국왕

- 국왕은 뉴질랜드 총리의 제청으로 임명되는 임기 5년의 총독에게 권한 위임
- 총독은 뉴질랜드 주권을 대표하지만, 평시에는 상징적인 권한만을 보유
- 다만, 정권 교체 시 국가권력의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의회 내 다수당 당수에게 정부 구성을 의뢰하고, 의회 소집 및 해산, 국회 통과 법률 동의 권한 보유

## ○ 의회민주주의 제도

- 형식적으로는 군주제이지만, 실제로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의회 다수당이 정부를 구성하며, 한 정당이 과반수 득표에 실패하는 경우 다른 정당과 연합하여 연립정부를 구성·운영

## ○ 행정부

- 뉴질랜드 정부조직은 총리실을 포함한 21개의 정부부처로 구성
- 이 외에 150여 개의 △처·청, △위원회, △공기업 등의 공공기관을 편제해 각 분야별 공공서비스를 지원
- 정부부처는 장관이 지휘하며, 장관은 각 부처별 소속 공공기관을 관리감독

## ○ 내 각

- 의원내각제이므로 각료들은 국회의원 중에서 임명
- 총선 후 총독은 다수당 대표에게 정부 구성을 위촉하고, 신임 총리의 건의에 따라 장관들을 임명
- 뉴질랜드 내각은 총 20명의 각료로 구성
- 총리는 담당업무의 경중에 따라 일부 의원들을 내각에 포함 되지 않는 非내각 장관으로 임명 가능, 총리와 장관은 각료회의를 통해 정책 결정

## ○ 지방자치제도

### <개 요>

-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정치적, 재정적으로 상당부분 자율권 행사
- 지방정부는 11개의 광역단체와 67개의 기초단체로 구성
- 광역단체는 명목상 넓은 지역을 관할할 뿐 별도의 행정력을 행사하지는 않으며, 이에 따라 67개의 기초단체만이 시장 보유
- 시장 및 지방의원은 중앙당의 공천 없이 무소속 출마가 원칙

### <광역단체>

- 총 11개로서 북섬에 7개, 남섬에 4개 존재
  - 북섬 : 노스랜드, 와이카토, 베이 오브 플렌티, 호스베이, 타라나키, 호라이즌, 광역 웰링턴
  - 남섬 : 웨스트 코스트, 캔터베리, 오타고, 사우스랜드
- 매 3년마다 직접선거로 의원을 선출하며, 의장은 의원들이 선출
- 명목상 넓은 구역을 관할하며 치수, 자연재해 관리, 환경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실질적인 지방행정은 각 지역별 기초단체가 수행

### <기초단체>

- 실질적인 지방조직으로 시장, 부시장, 의원으로 구성
- 매 3년마다 직접선거로 시장과 의원을 선출하며, 부시장의 경우 행정부 공무원이 아닌 의원 중 선출
- 지방세율조정, 지역개발, 도로, 상하수도, 쓰레기수거, 보건위생, 건축허가 등 전반적인 지방행정 담당
- 토지 및 건물 등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세수를 충당

## ○ 의 회

### <개 관>

- 1854년에 시작되었으며 당초 하원과 상원으로 구성된 양원제였으나 1950년 상원을 폐지하고 현재의 단원제로 개편
- 의원 임기는 3년, 의원 정수는 1854년 37명에서 현재 120명으로 증가
- 여성 참정권을 1893년 세계 최초로 인정하였으며, 2023년 여성 참정권 인정 130주년 기념행사 개최
- 2023년 10월 총선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후 제54대 의회 구성 예정

### <구 성>

- 단원제 : 임기 3년이며 총 의석수 120석(지역구 65석, 마오리 지역구 7석, 비례대표 48석)
  - 정당별 의석 구성(2023년 4월, 총 119석) : 노동당(63석), 국민당(34석), 녹색당(10석), ACT당(10석), 마오리당(2석)
- ※저신다 아던 전 총리가 2023년 1월 총리직에서 사임한 이후 2023년 4월 의원직까지 사임하여 노동당 의석수가 기존 64석에서 63석으로 감소
- 선거권과 피선거권
    - 만 18세 이상의 ■ 뉴질랜드 국적 보유자 또는 영주권 보유자 중
    -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뉴질랜드에 거주한 이들에게 선거권 부여
    - 선거권을 가진 시민권자는 피선거권이 있으나, 영주권자는 피선거권 미부여
  - 의회는 총독이 소집, 해산하며 통상 2월에 개최되어 12월 초부터 휴회
  - 영국식 소선거구제에서 1992년 9월 및 1993년 11월 국민투표를 거쳐 현행 혼합형 비례대표제(Mixed 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약칭 MMP)를 도입, 1996년 총선부터 시행

## ※MMP 제도

- 뉴질랜드는 최다득표 제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거대 정당인 노동당·국민당의 독주체제가 이어져 소수 정당의 원내진입이 어려워지는 등 대표성 문제 발생
- 1993년 국민투표를 통해 최다득표 및 혼합형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전환
- 이에 따라 유권자는 지지 정당과 지역구 후보에 별도 투표(2표씩 행사)하게 되고, 제1투표(정당명부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각 정당에 의석 수를 배분하며, 제2투표(지역구 투표)를 통해 해당 지역구에서 의원 선출
- 일례로 지역구 선거에서 20명을 당선시킨 A정당이 30%의 정당 득표율을 기록할 경우 120석 가운데 36석을 차지하게 되며, 36석은 지역구 당선자 20명과 A 정당의 비례대표 명단 상위 16명에게 배정
- 혼합형 비례대표제는 정당투표에서 최소 5%의 득표를 얻거나, 선거구에서 한 명 이상의 의원을 당선시키면 의석을 배분받을 권한을 갖게 되므로 한 정당이 과반수를 확보하기 어려워 거대 정당과 소수 정당 간 연합이 활발히 진행

## ○ 정 당

- 1996년 10월 총선부터 혼합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다당제 하 연립정부 구성이 일반적 형태로 자리매김
- 여야는 각각 정책 개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한 소속 의원의 의견 수렴을 위한 의원총회를 비공개 개최하며, 의원들은 의회 안건에 대해 자유표결을 허용하지 않는 한 당론에 따라 표결
- 야당은 소속 의원들의 경력 및 전문성에 따라 업무별로 대변인직을 부여하여 정부의 정책 등에 대해 비판하고 야당 차원의 견해 표명 및 대안 제시
- 집권 여당의 대표는 총리지만, 의회에서 내각의 정책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여당 소속 각료 중 한 명을 원내대표로 지명



- 원내대표는 의회 내에서 집권여당을 대표하며, 원내수석부대표를 통해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단속하는 등 리더십을 유지
- 뉴질랜드 의회는 제1야당의 대표에게 모든 야권 정파를 대표하는 야당 대표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야당에 대한 존중을 제도화
- 야당 대표는 각료와 동등한 보수를 지급받으며, 별도의 사무실을 제공 받고 특정 안보 사안에 대해 정보기관의 보고를 받는 등의 특권을 향유

## ○ 사법부

- 지방법원, 고등법원, 항소법원, 대법원으로 구성
- 지방법원이 1심 역할을 수행하며, 고등법원을 거쳐 항소법원이 실질적인 최종심의 역할 수행
- 대법원은 매우 중요한 법적 논점이 있거나, 국민적 중요성을 지닌다고 대법원이 인정하는 소수 사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재판권 행사